



The Holy Children with a Shell by Bartolomé Esteban Perez Murillo (1617-1682)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처럼 되십시오!
복음을 생활화 그리고 생활을 복음화**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죠. 어느 날 말씀을 읽었을 때 저에게 일어난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회개의 사건이며, 우리의 삶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로워지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6월 24일이 바로 재속프란치스코회칙이 인준된 날짜이며, 또한 성 요한 세레자 탄생 대축일이라는 사실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성 요한 세레자와 재속프란치스코 회칙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사이에 많은 점을 연결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 프란치스코의 세레명이 세레자 요한이었고, 그는 항상 성 요한 세레자 축일을 특별하게 기념했습니다. ¹ 어찌면 요한 세레자에게 자신을 봉헌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요한 세레자에 관한 것을 읽으며 감동을 하였으리라고도 생각됩니다. 사실 요한 세레자를 생각할 때 회개, 금욕 과 고행,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한 이로 떠올립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프란치스코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세레자와 성 프란치스코를 연결 지어 보고 TAU-USA에 글을 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쓰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성경에 기록된 요한 세레자에 관한 모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시간 동안 성경 주석을 찾아가며, 저는 요한 세레자의 탄생, 광야에서의 설교, 예수님의 세례와 그에 관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삶, 그의 부르심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에서 프란치스코의 삶의 양식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 간략하게 이 글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글 쓰는 것을 미루고, 이 기고문에 실을 요한 세레자의 이미지를 찾다가, 바로 여기에 실린 그림이 내 눈길을 끌었고, 그것을 관찰했던 것들이 온 종일 내내 저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림에 우린 그의 탄생에서부터, 대담하고 용감한 메신저, 철저히 회개를 외치던 설교자,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였던 그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의 사명을 수행했던 요한 세레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강생하시고, 어두움을 비치시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요한을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요한은 어린양을 바라보며, 겸손되어 허리를 굽히고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요한을 지긋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¹ *Exhortation of St. Francis to the Brothers and Sisters in Penance, Prologue of the OFS Rule*

이 아름다운 그림에서 너무나 많은 상징이 있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날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 세레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었고, 분명히 프란치스코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요한의 자리에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를 대신 그리며 상상했습니다. 그건 정말 쉬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프란치스코 보면서, 그의 말씀 “믿는 영혼이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정배들입니다.”² 저는 그들 사이의 친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놓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생명의 물을 건네실 때,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관상을 하는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기고할 글을 쓰는 날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글을 쓰는 날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변화됩니다.

얼마 전에 제 마음에 와닿던, Mary Bittner자매가 나누었던 아래의 인상적인 문구가 기억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지적인 정보나 윤리적인 지침 또는 심지어 주님의 현존과 선하심을 느끼게 하는 감상적인 감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도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온전히 의식하든 안 하든, 삶의 변화, 즉 회개로 현재의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와 좀 더 닮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빛을 발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기에 관상의 삶이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모험적인 일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한 두 번이 아니라, 매일 매일 기꺼이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그러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수동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그릇은 우리의 의지, 자유, 생각, 느낌 그리고 바램의 영적인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에 내맡기어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 매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³

이 인용문에서 지적하듯, 이는 수동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적인 관상을 하도록 초대하는 회칙이 있어 참으로 복됩니다. 이 회칙은 우리 자신을 복음에 헌신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초대합니다.”⁴ 또한 올해의 주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처럼 되십시오!”가 우리가 복음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복음화하는데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처럼 되십시오!” 이 말씀이 참으로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체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관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에 전념을 다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됩시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티토에게 보낸 서간 3:1-7)

² *Exhortation of St. Francis to the Brothers and Sisters in Penance, Prologue of the OFS Rule*

³ Erasmó Leiva-Merikakis, *The Way of the Disciple* p. 18

⁴ Rule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Articles 4, 5, 8